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5호 (2023.0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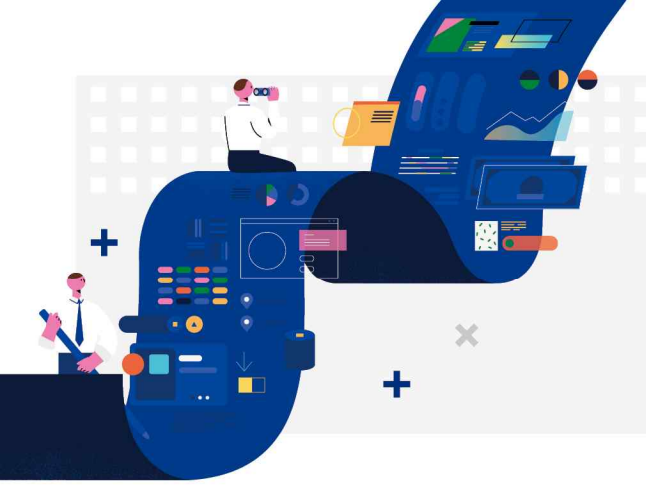
■ 이 슈

(국제) 지역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수소경제로의 전환

■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5호 (2023.06.16)

Cotents

I. 이 슈

(국제) 지역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수소경제로의 전환 1

II.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6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9

III. 국내 정책동향

(환경) 기후위기 적극대응을 위한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10

(창업) 2023년 1분기 창업기업 수, 지난해 동기대비 감소 10

(산업)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발표 11

(경기)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3% 증가...19개월만에 최저 11

(복지) 전국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12

(무역) 정부, 서비스 분야에 5년간 64조 원 수출금융 공급 계획 12

(주거)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확대...1만호 공급 예정 13

(관광) 행정안전부,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 5곳 선정·발표 13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국제

지역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수소경제로의 전환



#수소경제 #수소의 종류 #사업모델 #수소시장 전망

- 2023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지역 내 ‘수소 밸리’ 수를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연구개발 협력 합의문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전세계 최초로 기후 중립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경제, 경쟁력 있는 넷제로(net-zero)¹⁾ 경제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및 획기적인 기술이 필요함을 언급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²⁾”과 “REPowerEU³⁾”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의 수소경제를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청정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및 최종 사용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모델인 ‘수소 밸리’ 형성이 중요
 - ‘수소 밸리’란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지역 내 가구, 교통수단, 산업공장 등지에서 활용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지리적 구분으로, 유럽 국가들의 수소경제가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개념⁴⁾
 - 수소 밸리의 운영은 그린수소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여 시멘트, 철강, 유리 등의 산업군과 대형 운송 등의 분야에서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유럽 그린딜”에 따른 탈탄소화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EU의 에너지 독립에 기여
 - 동 합의문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을 통해 청정수소공동사업에 10억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REPowerEU’의 일환으로 수소 밸리에 2억 유로를 추가로 할당

1)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함.

2) ‘유럽 그린딜’은 2019년 12월 EU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발표한 정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보수 및 수리 △친환경 식품 시스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등 6대 정책 분야별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및 EU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상용화된 기술이 필요한 우선순위 영역 중 하나로 재생가능한 수소를 선정.

3) “REPowerEU Communication”은 ‘유럽 그린딜’의 목표에서 한 단계 나아간 계획으로, ‘수소 엑셀러레이터(Hydrogen Accelerator)’에서는 2030년까지 역대 재생가능 수소 연간 1,000만 톤 추가생산 및 1,000만 톤 추가 수입을 통해 이전의 EU 재생가능 수소 목표의 두 배를 달성하는 전략을 수립.

4) 수소 밸리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모빌리티 중심 △지역단위의 중규모 산업 중심 △국제단위의 대규모 수출 중심 등 크기와 범위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 지역의 에너지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표 1〕 유럽연합 “Joint Declaration on Hydrogen Valleys” 주요 내용

합의 사항	주요 내용
수소 밸리의 개발 및 유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 제공하여 청정수소 연구·혁신 아젠다 강화	- 에너지, 운송, 건물 등 부문의 탈탄소화와 탄소저감이 어려운 산업군에 대한 청정수소 기술 개발·유치를 위한 유럽 및 국가별 약속 및 지원정책에 기반 2023년 5월 중 수소 밸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유럽 전역의 수소 밸리 유치를 가속화
호라이즌 유럽의 청정수소공동사업을 포함한 청정수소기술의 연구·혁신에 대한 지속적 투자	-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자원 할당 지원 - 신규 민간 투자자 유치 지원
시너지 강화를 위한 협업을 통해 자금지원 효과 극대화	유럽혁신기술연구소의 InnoEnergy 및 기타 유럽 자금지원 사업 등 EU 민-관 파트너십과 청정수소공동사업의 협업 진행
기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지식 공유 및 파트너 매치메이킹을 촉진하여 신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개발 가속	수소 밸리 스마트 특화 파트너십(Hydrogen Valley Smart Specialisation Partnership), 청정수소지식허브(Clean Hydrogen Knowledge Hub) 등 유럽 내 다양한 수소관련 플랫폼 간의 네트워킹 강화
EU의 기존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 기술 동향과 수요를 이해하고, 그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 이를 통해 유럽의 경쟁력과 수소기술에 대한 수용력을 향상 가능
유럽 및 글로벌 수소경제의 성장·확대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수소 밸리 개발	지역별 수소 네트워크와 수소 밸리의 상호연결성은 유럽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시스템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극적인 연계 필요

* 자료 : European Commission, 「Joint Declaration on Hydrogen Valleys」 참고 및 재구성

○ ‘수소경제(Hydrogen Economy)’란 1970년대에 탄소경제(Carbon Economy)의 대안으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수소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저장·운송·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의미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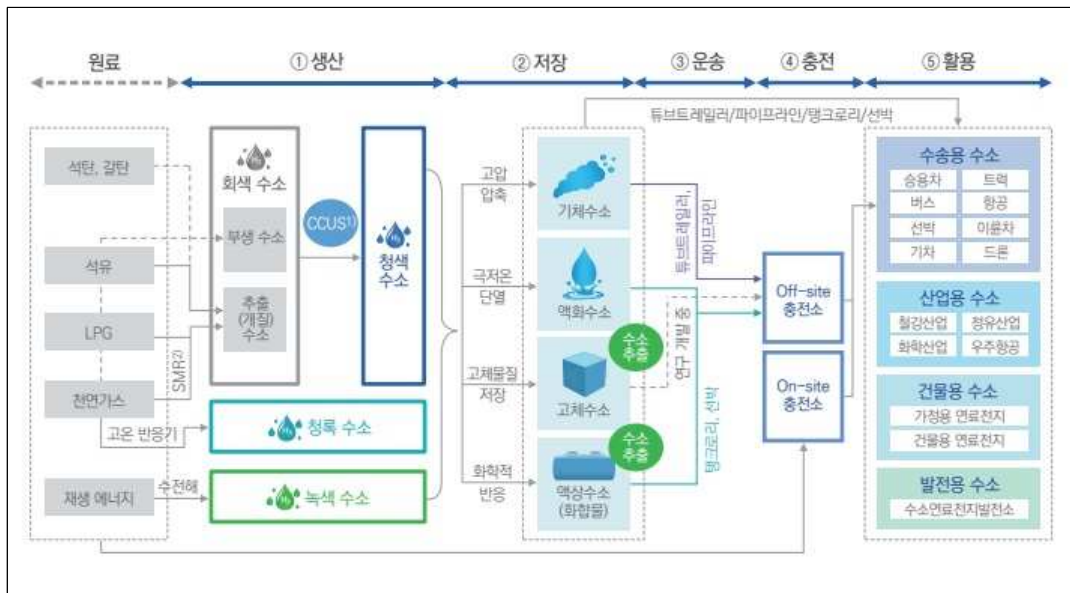
- 글로벌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해 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화석연료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연소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수소에너지는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수소경제로 전환 시 해외 에너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타 에너지원에 비해 저장 및 운송이 용이하다는 특징
 - 수소는 생산방식 및 친환경성에 따라 △브라운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인 그린수소의 생산을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방식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
- 수소경제는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에너지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어 전·후방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 가능

5) 2005년 미국 공학 한림원(The US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에서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운반하고 저장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를 직접 연소하거나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수급시스템에 기반 한 경제’로 구체화.

[표 2] 생산방식 및 친환경 여부에 따른 수소의 종류

구분	정의	에너지원	특징
브라운수소	석탄이나 갈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해 추출한 수소	화석연료	•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
그레이수소 (개질)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추출한 수소	화석연료 (천연가스)	• 수소 1kg 생산 시 이산화탄소 10kg 배출 • 수소 생산을 위한 별도 설비 불필요
그레이수소 (부생)	석유화학이나 철강 공정 등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수소	화석연료	• 폐가스 활용 • 생산량 확대 한계
블루수소	개질수소 생산과정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포집 및 저장 기술인 CCS 기술을 통해 별도 저장한 수소	화석연료 (천연가스)	• 경제성 높아 가장 현실적인 대안 • 이산화탄소 불안전제거
그린수소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만들어낸 수소	신재생 전기에너지	• 이산화탄소 배출 無 • 생산 단가 고비용

* 자료 : 한겨레(2021.04.12.), 삼성KPMG 경제연구원(2021), 국회예산정책처(2022) 등 참고 및 재구성



* 자료 : 삼성KPMG 경제연구원(2021)

[그림 2] 수소경제 밸류체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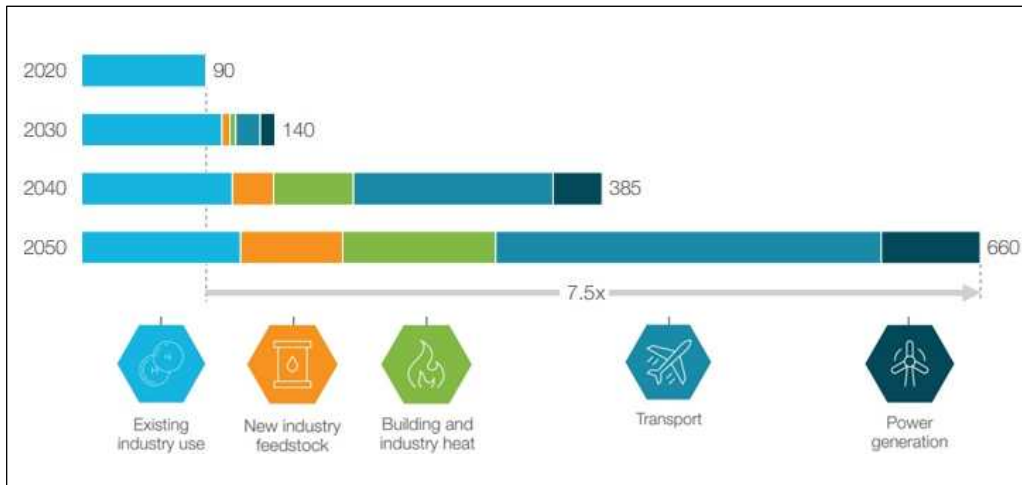
○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⁶⁾에 따르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 약 6.6억 톤의 청정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전세계 최종 에너지 수요의 약 22%에 해당하는 양으로, 연간 7기가톤(gigatons)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6) 전세계의 주요 완성차 기업(현대차·도요타·BMW 등)과 에너지기업(셀·토털 등) 13개로 구성된 협의체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7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기간 중 설립. 국제사회에서 화석연료 대신 수소연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국 정부와의 협업을 수소연료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의 활동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약 150개의 다국적기업이 참여.

대체할 수 있는 수준

- 2050년까지 청정수소는 총 80기가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연간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배 수준
-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감축할 수 있는 분야는 산업 및 운송 부문으로 2050년까지 누적 약 70기가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해양 △화학물질·철강 순
- 지역별로는 2050년까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유럽 및 북아메리카 등지가 전체 청정수소 수요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수요량은 △중국(2억 톤) △유럽 및 북미(각 1억 톤) △인도(55백만 톤) △일본 및 한국(각 35백만 톤) 순



* 자료 : Hydrogen Council(2022) 참고 및 재구성

〔그림 2〕 전세계 수소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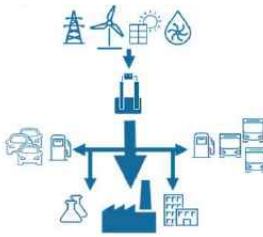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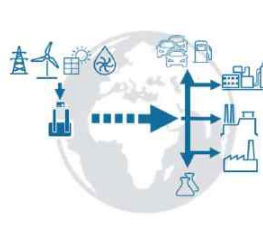
- 인천시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에너지 도시 조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및 수소앵커기업 유치에 추진하는 등 수소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중
- 인천시는 △부생·청정수소 31,400톤 생산 △수소산업집적단지 조성 △기업지원센터 설립 △테스트베드 운영을 포함하여 2027년까지 총사업비 2,403억 원을 투자하는 수소생산 클러스터 사업을 구상⁷⁾
- 이외에도 인천시에서는 수소산업의 선도를 위해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SK E&S, 미국 플러그파워 등 수소앵커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인천시는 지난 4월 시내버스 차고지 내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였으며, △지역내 액화수소 생산·공급(~'23.12, SK E&S) △2,127대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23.12) △수소충전소 14개 확대(~'23.12) △수소버스 700대 도입(~'24.12) 등 수소 모빌리티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행

7) 동 사업은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평가과정 진행 중에 있음. 2023년 5월 기준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1차 점검회의는 마친 가운데 6월 중 2차 회의를 진행하여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인천시에서는 예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를 대비하여 수소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검토 중(인천일보. 23.05.22).

○ 지역경제의 수소에너지 기반으로의 전환은 장기적이며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므로 인천시의 여건에 적합한 유형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 수소산업은 에너지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있으므로 이를 인천에 적합하게 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의 도입 목적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동 사업의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 예를 들어, EU의 수소 밸리의 경우 생산한 수소를 어떤 지역적 범위 내에서 어느 단계까지 기존의 에너지원을 대체해서 이용할 것인지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 지역별 활용 범위 및 방식 등에 차이가 존재
 - 유럽연합에서는 수소 밸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현지화한 가치사슬 범위 및 기술 선택 △최초 수행을 가능케하는 경제성(공적자금 포함) △공공 및 민간을 통한 충분한 자금조달 △프로젝트 수행범위에 속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협력 △대중의 정치적 지원 및 수용을 제시
- 또한 지역단위의 수소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및 지원체계 마련, 개발지역 허가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의 수소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표 3] EU 수소밸리의 3가지 유형 및 대표 지역 사례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정의	지역단위의 소규모 모빌리티 중심	지역단위의 중규모 산업 중심	국제단위의 대규모 수출 중심
밸류체인 도식화			
특징	• 지역 (그린) 수소 생산 • 이동수단에 제공(버스, 승용차, 트럭 등) • 최종 소비량 및 주유 기반 공유에 초점 • 이동성 및 전해조 단위 • 주로 민-관 이니셔티브 기반	• 지역 (그린, 블루) 수소 생산 • “앵커로드”라 할 수 있는 1-2개의 대규모 최종구매자 (산업·에너지 부문) 및 소규모 이동수단 소비자에게 제공 • 산업플랜트 주변의 기존 인프라 활용 및 그레이수소 공급을 대체 • 대체로 민간 부문 주도	• (그린, 블루) 수소의 저비용 생산 기반 대규모 프로젝트 • 해외 대규모 최종구매자에의 장거리 수소 운송을 목표(현지 공급 포함) • 국제적인 수요-공급 연결에 초점 • 대체로 민간 부문 주도
대표 지역	• 독일, Hyways for Future • 프랑스, Zero Emission Valley Auvergne-Rhone-Alpes • 이탈리아, Hydrogen Valley South Tyrol	• 스페인, Basque H2 Corridor • 미국, Advanced Clean Energy Storage • 영국, HyNet North West England	• 호주, Eyre Peninsula Gateway • IPCEI, Blue Danube • IPCEI, Green Crane

* 자료 : FCH(2021) 참고 및 재구성

건설 >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건설수주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기성 #주택허가 #미분양

- **(전국건설)** 2023년 4월 국내 건설시장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 및 건설수주액은 전월대비 감소하여 시장 둔화의 추세가 강화되었으며, 동행지표인 건축착공 면적 및 건설기성액은 상반된 양상
 - **(수주·허가)** 전국 건설수주액은 2022년 9월 이후 건설수주액은 크게 등락하며 안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건축인허가 면적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점차 감소⁸⁾
 - 4월 건설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각각 50.6%, 22.4% 감소한 897백억 원 수준으로, 공공부문이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수주액이 58.8% 급감한 것이 원인
 - 건축인허가 면적은 전년동월대비 42.1%, 전월대비 13.1% 감소한 10,368천m² 수준으로, 지난 2월 이후 연속 1개월째 전년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 **(착공·기성)** 2021년 1월 이후 건축착공 면적은 전월비 증감률이 평균 -2.0%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기성액은 지난해 건설비용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일부 해소되며 전년동월대비 개선
 -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동월대비 48.8%, 전월대비 29.4% 크게 감소한 5,690천m² 수준인데, 이는 △금리 인상 △준공 후 미분양물량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건설업계에서 착공 일정을 조정·연기하는 추세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
 - 4월 건설기성액은 1,452.0백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8% 크게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 **(인천건설)** 2023년 4월 기준 인천지역은 건설수주액, 건축허가 및 착공 면적이 모두 전월 대비 상승
 - **(수주·허가)** 인천지역의 건설수주액은 2021년 1월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건축허가는 등락을 반복하며 증가하고 있어 전국 추세와 차이
 - 인천 건설수주액은 전월대비 59.9% 증가, 전년동월대비 24.9% 감소한 46.9백억 원
 - 건축허가 면적은 전반적으로 전국 추이에 비해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 허가 면적은 전월대비 75.6%, 전년동월대비 26.7% 증가한 784천m² 수준
 - **(착공)** 인천의 건축착공 면적은 전국 추세와 다르게 전월대비 20.1%, 전년동월대비 72.9% 급격히 증가한 484천m² 수준

8) 2022년 1월 이후 전월 대비 증감률의 평균이 -1.6%로 약보합세.

〔표 1〕 건설산업 수주액 및 기성액 추이

(단위 : 백억 원, %)

지역	구분	'22.09	'22.10	'22.11	'22.12	'23.01	'23.02	'23.03	'23.04
전국	수주액 (증감률)	2,165.2 (56.2)	994.2 (-35.9)	1,574.1 (-8.4)	2,345.6 (-12.5)	1,932.9 (19.1)	1,135.5 (-3.5)	1,155.7 (-40.1)	897.0 (-50.6)
	기성액 (증감률)	1,279.1 (11.8)	1,365.6 (16.7)	1,482.5 (19.1)	1,784.6 (6.6)	1,220.3 (9.4)	1,271.3 (26.0)	1,512.2 (17.2)	1,452.0 (15.8)
인천	수주액 (증감률)	63.0 (-39.3)	25.3 (-84.5)	59.4 (-60.3)	124.7 (-55.5)	29.4 (-83.2)	52.0 (-11.1)	29.3 (-68.2)	46.9 (-24.9)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설공사계약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 : 건설수주액 및 기성액은 최근 연도에 진행된 '건설업조사'에 근거하여 각각 총기성액의 54%, 50%에 해당하는 기성액 순위 상위업체 선정하여 작성된 정보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건축허가 및 착공은 연면적(m²)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건축 인허가 및 착공 현황(2023.04)

- **(전국주택)** 2023년 4월 기준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수는 전월대비 증가했으나,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
 - **(허가)** 국내 2023년 4월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월대비 15.1% 증가, 전년동월대비 24.0% 감소한 36,927호 수준으로, 전국의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2021년 이후 감소 추세
 - 공공부문은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월대비 25.7% 증가했으나, 민간부문의 물량이 같은 기간 25.2% 감소하여 전체 인허가 물량이 감소
 - **(미분양)⁹⁾** 전국 미분양주택 수는 전월대비 0.1% 감소, 전년동월대비 162.6% 증가한 71,365호로, 2022년

9) 통계청 및 주택협회에서 제공하는 미분양자료는 공공부문의 미분양물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민간부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자료가 더해지면 더욱 증가할 가능성.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던 추세가 다소 주춤¹⁰⁾

- 한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716호로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24.9%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

○ **(인천주택)** 전국적인 추세와 같이 인천지역의 주택건설 인허가 수는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수는 2022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이 둔화

- **(허가)** 인천의 2023년 4월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월대비 862.9%, 전년동월대비 78.7% 증가한 2,128호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¹¹⁾
- **(미분양)** 2023년 4월 기준 인천의 미분양주택 수는 전월대비 13.9% 감소, 전년동월대비 561.9% 증가한 3,071호, 준공 후 미분양이 전년동월대비 256.2% 증가한 492호로 관리가 필요

[표 3]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및 미분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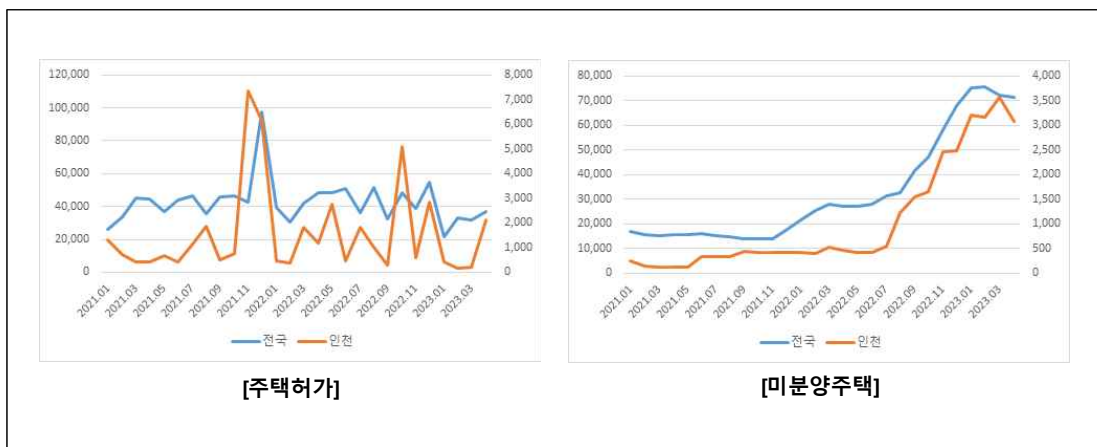
(단위 : 호, %)

항목		'23.01	'23.02	'23.03 (p)	'23.04 (p)	'22.04	전월비	전년 동월비
허가	공공	609	794	1,039	1,482	1,179	42.6%	25.7%
	민간	20,816	32,156	31,030	35,445	47,381	14.2%	-25.2%
미분양	민간	75,359	75,438	72,104	71,365	27,180	-1.0%	162.6%
	(준공후)	7,546	8,554	8,650	8,716	6,978	0.8%	24.9%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 현황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주택허가 및 미분양은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2 : 주택허가 통계는 월별 누계액 자료에서 전월 자료를 제한 각 달의 수치를 산출하여 이용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 현황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주택허가 및 미분양은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2] 주택 건설인허가 및 미분양 현황(2023.04)

1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주택은 약 16만호, 부동산가격 안정기인 2012년에서 2019년 사이 평균적인 미분양주택 수는 6만여호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시선도 존재.

11) 2023년 1~4월의 경우 인천지역의 공공부문 주택인허가 물량이 없어, 전체 인허가 물량이 민간부문과 동일.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3.04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98.0	-21.5	75.7	-27.6	193.7	53.9	117.1	-19.1	113.0	-21.3	145.4	16.3
자동차	133.0	16.6	129.9	14.1	116.6	30.7	141.4	45.8	138.4	40.9	163.0	219.6
기계장비	104.0	-3.5	106.2	-0.9	152.0	17.3	146.9	28.5	152.5	36.8	228.5	107.4
바이오-의약	119.2	2.2	112.6	0.0	-	-	134.4	9.1	52.5	-31.6	-	-
바이오-화장품	88.5	-20.5	89.9	-11.8	107.4	-4.5	109.5	0.1	105.5	13.7	95.4	-1.5
건설 수주액 (억원)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공공		민간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22,598	-11.2	64,811	-58.8	175	-94.0	4,462	41.4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환경 > 기후위기 적극대응을 위한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수립·발표
 - 블루카본은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을 포함하는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의미하는 말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블루카본의 가능성에 주목
 - 해수부의 동 전략은 크게 ①해양의 탄소흡수력 및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②민간·지역·국제협력 등 블루카본 조성 참여 확대 ③신규 블루카본 인증 및 장기 추진 기반 마련의 3가지 전략목표로 구성
 - 전략목표 ①, ②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염생식물 및 바다숲 조성 △ 갯벌 복원 및 보호구역 지정·보호 △연안의 인공구조물 자연상태 전환 △'블루카본 ESG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블루카본 파트너십' 구성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국제감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
 -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 내 블루카본에 비생식갯벌·해조류 포함 추진 △해역별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마련 △연안습지 온실가스 통계 산정 방법 고도화 △신규흡수원에 대한 국가고유 흡수계수 검증·등록 등을 통해 블루카본 전략의 장기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

창업 > 2023년 1분기 창업기업 수, 지난해 동기대비 감소



#중소벤처기업부

- 2023년 1분기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 영향으로 신규창업기업이 전년동기대비 4.1%(1만 5,360개) 감소한 33만 3,372개로 추산
 - △부동산 경기 하락 △금리인상 △자산가치 하락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인해 부동산 업종의 창업이 전년동기대비 47.9% 감소한 것이 전체 창업기업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에는 1분기 창업기업 수가 전년동기대비 5.8%(1만 6,512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
 - 업종별 창업기업 수는 건설업(9.4%), 제조업(14.0%), 금융·보험업(36.5%), 운수·창고업(13.5%)에서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으며, 숙박·음식점업(25.6%), 교육서비스업(9.0%), 정보통신업(13.4%), 도·소매업(7.9%), 전기·가스·공기업(49.4%)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증가
 - 2023년 1분기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6만 2,299개로 지난해보다 0.2% 감소했으나,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비중은 18.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산업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산업 관련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
 - 동 방안에 따르면 클러스터의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재정·세제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에 나설 예정
 - 클러스터 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법률·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및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
 - 또한 액셀러레이터(AC) 중심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벤처생태계의 활성화를 촉진
 -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경기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3% 증가...19개월만에 최저



#통계청

- 통계청 발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으로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하며, 2021년 10월(3.2%) 이후 최저치를 기록
 - 품목별로는 석유류의 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8% 하락하여 물가 상승폭 축소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농·축·수산물 역시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하며 물가상승 둔화에 기여
 - 한편 생활물가지수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3.2%, 4.3%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의 둔화 속도보다는 더딘 속도로 하락
 - 2023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성질별 등락률

(2020=100)	품목수	지수	등락률(%)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지수	458	111.13	0.3	3.3
상품	310	113.41	0.5	3.0
농축수산물	78	112.07	0.5	-0.3
공업제품	228	111.83	0.2	1.8
전기·가스·수도	4	132.60	2.2	23.2
서비스	148	109.13	0.2	3.7
집세	2	103.76	-0.1	0.6
공공서비스	30	102.64	0.0	1.0
개인서비스	116	113.53	0.3	5.6

복지 > 전국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 정부가 이른 더위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캐시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할 계획
 -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현행 대비 30% 이상 확대하고 지원단가 역시 4.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에너지바우처는 5월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또한 한전의 복지할인 요금제도 지원과 더불어 2022년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 올해의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
 - 일반 국민의 경우,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하여 전기 사용량을 전년동월대비 10% 감축한 이용자는 전기요금이 지난 5월 요금인상 전 수준과 동일하게 되어 전기요금의 부담이 완화
 - 에너지 캐시백은 6월 7일부터 한국전력 EN:T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 환급에서 월별 전기요금 할인 또는 현금 지급 정상 방식으로 변경

무역 > 정부, 서비스 분야에 5년간 64조 원 수출금융 공급 계획



#기획재정부

- 정부가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액 2,000억 달러 달성 및 세계 10위 서비스업 수출국 달성을 목표로 서비스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
 - 이를 위해 서비스 무역통계 신설 등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를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관광,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우선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64조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등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수출 실적 증명이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 또한 산업 특성에 맞는 △세제지원 체계 구축 △서비스 무역통계 고도화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수출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예정

서비스 분야	추진목표	핵심 과제
콘텐츠·관광	K-콘텐츠 수출, 관광·소비재 수출 유발	①K-콘텐츠펀드 조성 ②K-컬처 유니콘기업 육성 ③특화골목 조성 ④고급관광 확대 ⑤공·농·수용 및 촬영 허가제도 개선 ⑥영문 관광정보 통합플랫폼 고도화 ⑦면세쇼핑 편의 제고 ⑧관광숙박업 대상 E-9 비자 허용
보건의료	아시아 관광의료 중심국가 도약	①대형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 ②외국인환자 전담간병인 양성 ③해외진출기관 인지도 제고 ④해외진출기관 통합지원포털 운영
ICT	디지털 수출 강국 재도약	①SW·AI서비스 특화지원 강화 ②공공·민간 디지털 수출거점 신설 ③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지원

주거 >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확대...1만호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

○ 지난 6월 7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 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변경한다고 발표

- 변경 후 2023년 사전청약 공급 계획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급유형		청년, 신혼, 생애최초, 일반	청년,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일반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일반
특징		분양가 시세 70% 수준, 시세차익 70% 보장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분양가 시세 80% 수준
모기지		전용모기지 (저금리, 최대40년, 최대 5억 원)	분양시 전용모기지 (나눔형 동일, 임대보증금 80% 전세대출 지원)	일반모기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시기 및 지역	6월	남양주 왕숙(932호) 안양 매곡(204호) 고덕 강일3단지(590호)	-	동작구 수방사(255호)
	9월	하남 교산(452호) 안산 장상(439호) 마곡 10-2(260호)	구리 갈매역세권(300호) 군포 대야미(340호) 화성 동탄2(500호)	구리 갈매역세권(365호) 인천 계양(618호)
	12월	남양주 왕숙(836호) 마곡 택시차고지(210호) 한강이남(300호) 위례 A1-14(260호) 고양 창릉(400호) 수원 당수2(403호)	부천 대장(400호) 고양 창릉(600호) 남양주 진접2(300호)	대방동 군부지(836호) 안양 관양(276호)

관광 > 행정안전부,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 5곳 선정·발표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한국섬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여름철 휴가를 즐기기에 좋은 섬 5곳을 선정하여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발표

- 2023년 여름섬에는 △인천 옹진 대·소이작도 △충남 보령 삼시도 △전북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전남 신안 도초도 △경북 울릉 울릉도가 선정

• 여름섬은 휴가철을 고려하여 여름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트레킹·스킨스쿠버 등 활동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섬을 중심으로 선정

- 여름섬 5곳에 대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 섬진흥원에서는 여름섬을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경품을 제공할 계획

참고 자료

- Hydrogen Europa, “Joint declaration signed on hydrogen valleys”, 2023.03.01.
- European Commission, Factsheet “REPowering the EU with hydrogen valleys”, 2023.03.
- 한국경제, “러시아와 결별...‘리파워 EU’ 세부안 보니”, 2022.06.08.
- 한스경제, “[ESG 규제 ③리파워EU] “러 의존 낮추자”...신재생 늘리는 EU”, 2023.03.15.
- S&T GPS, “EU, 수소 밸리 확대를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 2023.03.02.
- 국회예산정책처, 「수소경제 관련 주요국 추진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2022.09.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소생산에서 활용까지, 수소경제에서 찾는 기회」, Samjong INSIGHT, 제79호, 2021.10.26.
- 한겨레, “수소경제는 친환경?...문제는 수소 생산방식이다”, 2021.04.12.
- Hydrogen Council, 「Global Hydrogen Flows: Hydrogen trade as a key enabler for efficient decarbonization」, 2022.10.05.
- Hydrogen Council, 「Hydrogen Insight 2023 - An update in the state of the global hydrogen economy, with a deep dive into North America」, 2023.05.
- Hydrogen Council, 「Hydrogen for Net Zero」, 2021.11.03.
- Deloitte, 「기후기술과 수소경제의 미래」, Deloitte Insights, 제24호, 2022.11.
- 인천일보, “인천시, 청라 수소클러스터 사업 ‘플랜B’ 세운다”, 2023.05.22.
- 인천광역시, “인천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에너지 도시 조성에 박차”, 2022.12.28.
- 인천광역시, “인천시, 내년에 수소충전소 14개로 늘린다”, 2022.12.20.
- 인천광역시, “인천시, 올해 역대 최대 규모 2,127대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2023.01.27.
- 인천광역시, “인천시, 수소모빌리티 전환으로 대한민국 수소경제 이끈다”, 2023.02.22.
- 인천광역시, “인천시, 전국 최초 버스 차고지 내 수소생산기지 준공”, 2023.04.18.
- FCH, 「Hydrogen Valleys. Insights into the emerging hydrogen economies around the world」, 2021.06.02.
- FCH, “The importance of Hydrogen Valleys from an EU and global perspective.”, 2021.08.18.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및 ‘주택건설실적통계’.
- 한국주택협회,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조선일보, “늘어가는 ‘악성 미분양’...수도권 1,649가구로 1년 만에 3배 급증”, 2023.06.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탄소흡수 ‘블루카본’으로 해양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2023.05.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 1분기 창업기업 전년대비 4.4% 감소...부동산업 창업 감소세 지속”, 중소벤처기업부, 2023.05.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 제한 풀고 민간 투자 유도”,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6.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3%↑…19개월만에 최저치”, 통계청, 2023.06.02.
- 통계청,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2023.06.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 절약하면 인상 전 전기요금…7일부터 에너지캐시백 신청 접수”, 기획재정부, 2023.06.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계 10위’ 서비스업 수출국으로…5년간 수출금융 64조 공급”, 기획재정부, 2023.06.05.
- 기획재정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27년까지 수출지원 50% 이상 확대, 수출금융 64조원 공급”, 2023.06.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확대…1만호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 2023.06.0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름휴가 안성맞춤 ‘섬’, 어디?…찾아가고 싶은 여름섬 선정”, 행정안전부, 2023.06.07.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5호(2023.06.16)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06월 16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